



4면
탄소·세라믹 복합계
국내생산 상용화 '착수'

전주매일

2020년 4월 8일 수요일 (음 3월 16일) 제2512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튜링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마스크자국 깊게 새긴 송고한 분들에게 감사”

송 지사, 보건의 날 맞아 보건공무원에 서한

제48주년 보건의날을 맞아 7일 송 지사(이하 송 지사)가 코로나19에 맞서 최 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보건 공무원들에게 서한문을 보내 경애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송 지사는 이날 보내 보건 관련 공무원 1,605명에게 보낸 감사 서한문을 통해 “코로나19로 엄중하고 힘든 시기에 맞는 보건의날을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며 “오늘도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보건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송 지사는 “2019년 보건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메르스를 극복한 저력이 있는 우리는 다시 코로나19와 맞서 싸우고 있다”며 “5년 전에도, 지금도 현장의 최일선에는 보건 공무원 여러분이 있다”고 치하했다. 송 지사는 “현재까지 우리 도의 확진자 수가 적은 것은 여러분의 전문성과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다”며 “마스크 자국이 깊게 새겨진 여러분의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 송고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를 겪으며 대한민국 방역과 의료 수준에 세계가 놀라고 있는 것은 사명감 하나로 현장을 지키고 계신 여러분께 세계가 보내는 찬사와 신뢰이기도 하다”며 “여러분이 전라북도와 대한민국을 살리는 영웅이자 희망이다”고 치켜세웠다.

하지만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만 명을 넘어서는 등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는 현실에 대한 우려를 전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도 했다.

송 지사는 “해외 입국 도민 중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도 2주 연장돼 아직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며 “사랑하는 가족과 동료, 이웃들이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



도록 방역과 의료 현장에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송 지사는 “코로나19를 물리치는 그 날, 여러분과 함께 손 맞잡고 환하게 웃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여러분의 가족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고 편지를 끝맺었다. /김진성 기자

굳게 닫힌 국경 뚫고 연일 우정 배달

중국 상하이·장쑤성 이어 윈난성·주광주도 마스크 전달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 속 전 북도에 대한 중국 자매·우호지역의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이 답지하고 있다.

도는 지난달 중국 상하이, 장쑤성 이어 최근에는 도 우호지역인 윈난성에서 의료용 마스크 2만장을 대안적십자회 등을 통해 전달해왔으며, 중국 주광주 총영사관에서도 의료용 마스크 5천장을 코로나19 방역에 힘을 보태기 위해 보내왔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28일 중국 정부가 모든 외국인 입국을 거부하고 사실상 국경

봉쇄를 선포한 가운데서도 굳게 닫힌 국경을 뚫고 전달된 것으로, 위기상황에서 꽃피운 전북도와 중국과의 우정이 국제교류의 좋은 귀감을 사고 있다.

중국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방역물품은 도내 의료인, 환경미화원 등에 지원되어 의미있고 소중하게 쓰일 예정이다.

중국 윈난성은 중국자매우호지역 중 가장 최근에 교류관계를 맺었지만 (2009년) 전북과의 교류에 매우 적극적이어서 양 지역 간 다양한 교류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다.

중국 주광주 총영사관(관할지역 : 호남권, 09년 개소) 쑨 시엔위(孫賢宇) 총영사는 전북의 대중국 교류에 특별한 관심을 두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왔으며, 지난해 1월 그 공로를 인정받아 전라북도 명예도민으로 위촉된 바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중국 자매우호지역에서 보내준 방역물품이 전북도의 코로나19 방역에 큰 힘이 되었다”며 “국제사회가 함께 힘을 합쳐 코로나19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되고 서로가 기쁘게 마주하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바란다”는 기대와 확신을 전했다.

중국 윈난성은 중국자매우호지역 중 가장 최근에 교류관계를 맺었지만 (2009년) 전북과의 교류에 매우 적극적이어서 양 지역 간 다양한 교류가

전국 최초 공공 배달앱 ‘배달의 명수’ 잇단 화제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출시한 공공배달앱인 ‘배달의 명수’가 전국적인 관심을 끌며 연일 화제다.

지난달 13일 출시한 지역어플인 ‘배달의 명수’는 군산 시민들을 위한 지역어플임에도 전국적인 관심을 끌며 ‘배달의 명수’에 접속 지연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기존 민간 배달앱을 사용하면



서 과도한 광고료와 수수료로 부담이 되고 있던 전국의 영세 소상공인들의 공공배달앱 출시에 대한 염원과 관심이 높았기 때문이다.

특히 전국 지자체들도 군산 배달의 명수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접속하거나 문의가 늘

면서 이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가입자수는 2만13,549명으로 군산지역 내에서도 큰 사랑을 받고 있었던 배달의 명수는 하루만에 7,929명의 가입자가 늘어 지난 6일까지 가입자수는 3만1,478명으로 군산시의 예상수치를 크게 뛰어넘고 있다.

이종혁 소상공인지원과정장은 “광고료와 수수료를 절감한 군산지역어플인 배달의 명수에 전국적인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신 데에 감사 드린다”면서 “사업주와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전북도-도 공무원노조 단체협약 체결식
7일 도청 접견실에서 열린 2020년 전북도-도 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 체결식에 송하진 도지사와 김형국 전북도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체결식을 가진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전북도, 활동비 선지급으로 생활안정 도모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이어 생활체육광장지도자 등 혜택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면서 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잇따르는 가운데 전북도가 활동비 선지급을 통해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지속적인 동참을 호소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7일 코로나19에 따른 활동 중단으로 수당을 받지 못하는 생활체육 광장지도자 중 선지급을 원하는 경우 활동수당을 선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지급을 받는 생활체육 광장지도자는 코로나19 사태 진정 뒤 선지급 받은 시간 만큼 확대 조정해 추가 배치를 계획하며, 선지급을 원하지 않는 지도자에 대해서도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확대된 시간만큼 수당을 보전해 줄 방침이다.

도내 생활체육 광장지도자는 학교 운동장과 공원, 문화체육센터 등 시·

군 적정 장소 136곳에서 3월 이후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연초에 선발됐지만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에 따라 사업 자체를 연기한 상태다.

이미 선발된 광장지도자들에게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고수할 경우 실업급여 수당 신청에도 장기간 애로사항이 발생해 도에서는 광장지도자 활동수당 선지급 및 추가 활동 배치 등의 운영계획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활동수당을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앞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와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해서도 활동비를 선지급하며 생활 안정 도모에 나서고 있다.

전북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이 일시 중단된 노인일자리사업 공익활동 참여 어르신 중 희망자에

계 3월분 활동비를 선지급했다. 도내 공익활동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은 4만7,400명이다. 또 도내 문화관광해설사 258명에 대해서도 선지급을 원하는 경우 활동비를 선지급하는 방침을 결정하고 선지급에 나섰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선지급과 추가 활동 배치를 통한 활동비 보전 방안을 건의해 전국 지자체에 전파하게 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의 연장으로 사회 각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생활안정을 위한 선제적인 대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전북도는 각계각층의 어려움을 살피고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테니 도민들도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으로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 로

상패·트로피제작 전문업체

명품종합상사

TOTAL ADVERTISING WORLD

김한경

광고사업부
트로피 / 상패 / 명패
실사현수막 / 각종깃발
팸플릿 / 리플릿 / 각종인쇄

판촉사업부
기념품 / 판촉용품
단체복 / 기념타올

전주시 완산구 문화광장로23 신화빌딩 1층
사무실 : 063-232-2323
063-251-4664
F A X : 063-286-4665
Mobile : 010-3656-8657
E-mail : mpct2323@hanmail.net

www.mp2323.com